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0년 4월 12일(주일) 제1290호

예수 부활하셨네

CHRIST IS RISEN



“예수 부활하셨네!”

부활주일 예배 드라이브 인 워십, 온라인으로 드린다
지난주에는 온라인 고난주간 심야예배 ‘십자가의 승리’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전 15:20).

오늘(12일)은 부활주일이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기뻐하는 날이다.

온누리교회는 부활주일 예배를 ‘드라이브 인 워십’과 ‘온라인’으로 드린다. 드라이브 인 워십은 오늘(12일)부터 10주 동안 매주 주일 이어진다. 양재동 현주차장(양재대로 12길 25)에서 진행되는 드라이브 인 워십은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4부 오후 4시, 5부 오후 6시에 진행된다. 드라이브 인 워십 실황은 온누리교회 유튜브로도 생중계된다.

드라이브 인 워십에 참여를 원하는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사전등록 해야 한다. 생성된 바코드를 휴대폰에 저장해서 예배 당일 주차장 출입 전에 제시하면 된다. 드라이브 인 워십 신청은 매주 월요일 9시부터 가능하고, 각 예배마다 차량 220대를 선착순 마감한다.

드라이브 인 워십은 지정된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 라디오로 설교를 듣는 방식의 안전한 예배이다. 정부의 권고대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충족하면서 전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대안이다.

온라인 예배는 CGNTV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을 통해 1~7부 예배까지 드린다(2면 예배안내 참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행사도 이어진다. 오늘(12일) 차세대사역본부에서는 부활절 기념 ‘선물패키지’ 및 ‘기쁨의 50일 성경읽기 노트’를 사전신청한 차세대 가정에 배포한다. 부활절 각티슈(가정예배용), 기쁨의 50일 성경읽기 노트, 계란 모양의 미니화분, 간식 등으로 구성된 부활절 기념 선물패키지는 차량으로 교회를 방문해서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수령하면 된다.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도 오늘(12일)까지 이어진다. 굿윌스토어는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용품들을 기증받아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직업재활과 고용을 돕는 장애인 고용시설이다.

굿윌스토어 기증 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눔도 실천하고, 환경도 지키고, 이웃도 돕는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참여방법은 서빙고, 양재, 부천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윌스토어 수거함’에 물품을 넣으면 된다. 수원, 대전, 남양주, 평택, 인천, 강동은 자체적으로 기증품을 모아두면 굿윌스토어에서 한꺼번에 수거할 예정이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드라이브 인 워십에서도 굿윌스토어 안내부스를 설치한다. 오늘 굿윌스토어 기증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은 굿윌스토어 대표전화(1670-9125)로 문의하면 담당자가 가정을 방문해서 수령해 간다.

굿윌스토어에 기증 가능한 물품은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수선이나 세탁이 필요한 의류, 사용한 흔적이 있는 물품, 파손되거나 더러운 제품 등은 기증할 수 없다.

고난주간이었던 지난주 4월 6부터 10일까지는 ‘십자가의 승리’를 주제로 온라인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렸다. 설교는 이재훈 담임목

사가 설교했다. 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의 죄를 깊이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더욱 정결해지기를 바란다”고 권면했다.

임정열 장로(고양은평공동체)는 “평상시와 다른 고난주간을 보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더욱 귀 기울였다”고 했고, 최정주 권사(이수공동체)는 “온라인으로 고난주간 심야예배를 드렸지만 순원들과 단체채팅방에서 서로의 간증을 나눌 정도로 은혜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올해 고난주간 심야예배는 CGNTV와 유튜브로 생중계되었다. 실시간 시청자가 최고 약 3천 명에 달할 정도로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고난주간 동안 성도들이 금식기도하고 봉헌한 헌금은 사회취약계층과 지역 전통시장을 돕는 ‘공감소비운동’ 캠페인에 사용된다.

드라이브 인 워십 문의: 02-3215-3232, 02-570-7447

굿윌스토어: www.miralgoodwill.org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부활의 50일을 전통시장과 함께!’

오늘부터 50일 동안 공감소비운동 캠페인
전통시장과 취약계층 돕는 사회적 나눔

전통시장도 살리고, 사회취약계층도 돕는 1석2조 캠페인 ‘공감소비운동’이 오늘부터 5월 31일(성령강림주일)까지 50일 동안 실시된다.

공감소비운동 캠페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전통시장이나 지역 소상공인, 사회취약계층을 돕는 사회적 나눔 운동이다. 부활절 헌금과 4월 비

전헌금을 각 지역 전통시장에 환원하고, 사회취약계층에게 물품을 전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감소비운동은 이렇게 진행된다. 교회가 헌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각 공동체 다락방에 나눠 주면, 각 다락방에서는 해당 상품권을 5월 31일(주일)까지 지역 내 전

통시장을 포함한 소상공인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해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면 된다. 온누리상품권의 직접 지원은 지양해야 한다. 반드시 지역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업체에서 물품을 구입해서 사회취약계층에게 전달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문의: 02-3215-3434

4월 17일 양육 온라인 영상강의 개강

이재훈 목사 로마서 강의 4월 22일 개강

2020년 1학기 온누리교회 양육 온라인 강의가 이번 주 금요일(17일) 오전 10시 개강한다. 이재훈 담임목사 로마서 강의는 4월 22일 개강한다. 양육 온라인 강의 신청을 원하는 성도는 개설되는 스쿨의 개강일까지 아이스쿨에서 소속 공동체를 검

색해서 신청하면 된다(표 참조). 강의는 이재훈 담임목사와 각 캠퍼스 담당목사들이 한다. 수강생들의 목회적 지도와 돌봄은 공동체 담당목사들이 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중복 학점을 인정해준다. 속제는 영상이 업로드 된 다음 주 목요일 자정까지

소속 공동체 담당목사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양육 온라인 영상강의는 온누리교회 양육본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면 된다. 공동체 진행 강의는 실시간 화상강의로 진행된다. 해당 공동체만 수강할 수 있다.

문의: 서빙고(02-3215-3280)

양재(02-570-731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캠퍼스별 전체 강의〉

캠퍼스	담당목사	개설 강의	진행방법	비고
전체	이재훈	로마서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서빙고	박종길	갈라디아서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이기훈	큐티	유튜브 검색	서빙고 통합반
	김홍주 외	와이미션	유튜브 검색	서빙고 통합반
양재	이상준	성경통독_구약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이기훈	큐티	유튜브 검색	양재 통합반
	김홍주 외	와이미션	유튜브 검색	양재 통합반
	조바울	창조신앙스쿨	실시간 화상강의	사역팀 개설반
수원	신기섭	빌립보서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부천	윤길중	이사야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대전	김상수	하나님의 성품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평택	손신국	빌립보서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남양주	이해영	요한복음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인천	서경남	요한1,2,3서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강동	노치형	이사야2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노치형	비전통독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양지	도용환	성경연구방법론	실시간 화상강의	공동체별 신청
서산	임용성	하나님의 성품	유튜브 검색	공동체별 신청

〈공동체 진행 강의(해당 공동체만 수강 가능)〉

캠퍼스	담당목사	개설강의	진행방법	비고
서빙고	박성은A(신용산)	요한1,2,3서	실시간 화상강의	공동체만 수강가능
	이기원(OCC)	빌립보서	실시간 화상강의	공동체만 수강가능
양재	조현수(경기A)	큐티	실시간 화상강의	공동체만 수강가능
수원	김태용(동누리)	요한복음	실시간 화상강의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4월 30일까지 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가 4월 30일(목)까지 계속 이어진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12시간 동안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는 공동체별로 정해진 요일과 시간에 교회 본당에 나와 1시간 동안 중보기도 하면 된다. 각 캠퍼스 안내데스크에 마련된 기도문을 이용해서 중보기도 하면 된다. 공동체별로 등록된 성도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인원은 서빙고와 양재 10명, 캠퍼스는 5명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본당에 입장해서는 개인 간 거리를 최대한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기도해야 한다.

온라인으로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에 참여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www.onnuri.org)에서 ‘온라인 릴레이 기도’를 클릭한 다음,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이름을 적고 자신이 있는 곳에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 된다.

정병균 장로(영등포구로공동체)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려 많이 아쉬웠는데 릴레이 기도에도 참여하게 돼서 감사하다”며 “기도하는 내 눈물이 났을 정도로 마음이 먹먹했다”고 말했다.

문의: 02-3215-3201, 02-3215-3313

/ 정현주 기자

CGNTV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

오늘 2편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 방영



바누아투에는 아직도 원시에 가까운 부족들이 살고 있다.

CGNTV가 오늘 오전 10시 30분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의 2편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를 방영한다. CGNTV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CGNTV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바누아투로 간 사나이’에서는 원천희, 김난주 선교사의 사역과 삶을 소개한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바누아투는 전 세계 행복지수 1위의 나라이자 휴양지로 유명한 곳이다. 원

천희, 김난주 선교사 부부는 그곳에서 원시 부족들을 섬기면서 학교와 교회를 세웠다. 현지인 선교사도 양성하고 있다.

CGNTV 개국 15주년 특집 다큐 〈땅 끝의 증인들〉은 3부작이다. 3편은 생의 마지막까지 필리핀에서 의료선교사로 헌신했던 박누가 선교사의 삶을 조명한 ‘우리가 사랑한 마지막 시간’이다. 4월 26일(주일) 오전 10시 30분에 방송된다.

예 배 안 내

4월 19일(주일)까지 국내 10개 캠퍼스 예배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각자 자리에서 예배드립니다.

-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주일예배(1~7부)와 새벽예배(1부 오전 5:20, 2부 6:30)에 참여합니다.
-온누리교회 유튜브: www.youtube.com/user/Onnuriservice
-CGNTV: www.cgntv.net
- 개인영성 관리를 위해 생명의 삶(QT)과 더불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새벽예배’,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암기’,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에 매일 참여합니다.
- 3월 공동체 순장모임과 순예배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 차세대 온라인 주일예배

-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9:00, 11:30, 오후 2:00
-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11:30, 오후 2:00
- 파워웨이브 오전 9:00, 11:30
- 차세대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차세대
- 5. 대학청년 온라인 예배
 - 주일예배: 토요일 오후 5:00, 주일 오전 11:30, 주일 오후 2:00, 4:00, 5:30
 - 홀리스타: 오전 6:30(월~금)
 - 대학청년 전용채널: www.youtube.com/c/온누리교회대학청년
- 6. 외국어 온라인 주일예배

- 영어예배 www.youtube.com/user/OnnuriEM 오전 11:00, 오후 4:00
- 일본어예배 www.youtube.com/channel/UCrUjyxgLiZPdsu84aFkfpBw
- 중국어예배 www.youtube.com/channel/UCz9aiOc3ImRdKi0rt600DOQ
- 스페인어예배 www.youtube.com/user/neira7003
- 프랑스어예배 www.youtube.com/channel/UCZOzpnYpylq_wQsw4gSAnWg 오후 2:00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인류 전체가 전염병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전염병으로 인해 가장 비참하고 힘들었던 때는 흑사병이 유럽을 휩쓸었던 14세기에서 17세기입니다. 당시 유럽 인구 7,500만 명에서 2억 명 정도가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종교개혁자 츠빙글리가 1519년 1월 취리히에서 목회자로 사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흑사병이 도시를 덮쳤습니다. 취리히 인구 7천 명 중에서 2천 명가량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츠빙글리도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는 매일 병자들을 돌보다가 자신도 병에 걸려 앓아눕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츠빙글리가 회복되었고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종교개혁자로 변화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전염병조차도 하나님의 작정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퍼뜨리는 것은 마귀의 행동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장 칼뱅이 흑사병을 맞게 된 것은 1542년 제네바에서 목회자로 사역할 때입니다. 너무 치명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병자들을 자원해서 돌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병자들을 돌보는 의료역할까지 해야만 했던 시기였습니다. 장 칼뱅도 환자들을 돌보겠다고 자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솔직하고 정직하고 두려움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동료가 앞서 그 일에 자원했지만 만일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면 자신도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솔직히 두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나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빛을 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보던 의료인이 한 분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염병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많은 의료인들, 방역 당사자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큰 빛을 쬔습니다. 종교개혁 시대 3세기에 걸쳐 흑사병과 싸웠던 믿음의 사람들은 때로는 희생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 희생된 것도 아니고, 또 믿음이 남달라서 치유를 경험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섭리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도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어 전염병

과 싸워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헬라어로 시험은 ‘페이라조’인데 폭넓은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공격’이라는 뜻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점에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전염병 사태를 하나님을 대적하여 창조질서를 거스르고, 인간의 질서를 세우려 했던 인간을 멈추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또한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이 시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시험의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악으로 공격하는 사탄에게 속아 악을 행하며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공격은 ‘악으로(with evil)’ 공격할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도록(to evil)’ 시험하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염병의 위기에서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악을 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행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세상이 어둡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기회요, 세상이 교회를 필요로 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당에 함께 하지 못한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이므로 우리가 흠어져 교회가 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재난은 또 올 것입니다. 우리는 말세 고통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셨을 때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그것은 장차 올 공격을 예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의 불순종을 이용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 보시오.’”(3절).

사탄의 목적은 언제나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했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신이면 신답게 존재하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고통을 피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고통을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능력을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분의 능력은 자신을 돌보는 데 쓰는 능력이 아니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의 능력을 행하는 데 쓰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지으신 것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본래 의도가 아닌 것으로 바꾸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을 바꾸는 것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하는 말에 숨겨진 사탄의 무서운 음모는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2-3).

예수님은 진정한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전염병의 시험을 이기는 길은 떡 말고도 살아갈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보존되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위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나님의 창조질서로 회복하고 되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사는 것은 유일하고 참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유일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사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5절).

성전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고 느끼게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영원한 생명, 영적 생명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믿음을 보이자 두 번째 시험에서 그 믿음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성전에서 그 아들을 얼마나 지키시는지,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6절).

예수님의 믿음을 위협한 믿음으로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악으로 대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악입니다. 전염병의 위기 때 하나님을 시

험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자신에게 맞추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머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행하는 것입니다. 뜻을 모를 때는 기다리고 서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에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시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앞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8-9절).

사탄의 소원은 한순간만이라도 하나님이 되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이가 경배를 받고자 하니 타락한 것입니다. 사탄은 세상의 온전한 통치자가 아닙니다. 사탄은 불순종하는 이들, 죄를 범하는 이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이들, 창조질서를 거스르는 이들을 통해서만 세상을 다스릴 수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세상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분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왕국을 꿈꾸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꿈꾸었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10절).

이것이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었습니다. 전염병의 시험에서 우리는 “온 맘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고 온 맘 다해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경배하는 일을 게을리 하고,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무너뜨린 인간이 만들어 낸 비극이기에 우리는 다시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로 돌아갈 때 회복이 빨리 오리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신뢰해야 합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이 멈춰서는 것을 슬퍼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지 못한 것을 슬퍼하며 하나님만 경배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전염병의 시험에서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동경 온누리교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이제 내가 사는 동경이 일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가장 많아진 것 같다. 크리스천으로서 2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교회에도 갈 수 없게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항상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안의 영이 회복되었다. 때로는 육체적, 영적으로 지쳐도 예배로 인해 금세 회복되는 일이 많았다.

우리 가족은 한국인 아내와 6살 딸, 3살과 1살이 된 아들이 있다. 아이들 돌보느라 예배에 집중 못할 때가 많지만, 그래도 교회에 갈 때마다 회복이 되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3월부터 교회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고, 인터넷 영상예배로 대체되었다.

예전에 나는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진짜 예배가 아니다”라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 적이 있었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거야”라며 내



츠치다 성도네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했다. 어느새 나 자신이 종교적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생각들이 바뀌어가고 있다. 매일 영상을 통해 <생명의 삶> 큐티를 하며 조용하게 하나님

의 음성을 청종하는 습관이 생겼다. 주일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영상으로 새벽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지내고 있다.

동경에서는 교회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이벤트 등의 자제 요청으로 인해 현재 아이들도 어

디에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사람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어두운 소식만 들리는 이 상황 속에서 어디에 희망이 있으며, 어디로 눈을 돌려야 할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우리 순은 비록 교회에서 모일 수 없어도 화상으로 함께 나눔을 가지며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모임이다. 동경 땅에서 일본인과 한국인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순이다.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지라도,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 해도, 교회에 함께 모이지 못하더라도 나의 신앙은 흔들림 없이 언제나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할 것이다.

이 불안한 시기에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 있었다. 지난 3월 26일 넷째 아이가 태어났다. 어두운 뉴스만 들려오던 중에 찾아온 밝은 희망이다. 나는 이 아이가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가 되길 바라며 ‘키이(希生)’라고 이름 지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린다.

/ 츠치다 히데오 성도(동경 온누리교회)

화성 온누리M센터가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립니다”

화성 온누리M센터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믿음과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안부 인사드립니다.

올해 1월 한국어교실과 예배가 시작되기가 무섭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국어 수업과 예배를 중단했습니다. 당시에는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4월이 시작됐는데도 한국어교실과 예배를 시작할 수 없어서 봉사자들과 외국인 형제자매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사회생활 환경이 넓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릴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은 공장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비교적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안전합니다. 그렇지만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면 공장 전체가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주말에도 외출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성도들을 위해 네팔어예배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팔어예배의 사가르 목사님이 매주 센터에 나와서 네팔형제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던 장소를 보며 성도들과 함께 예배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얼굴을 마주하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교제하고, 찬



화성 온누리M센터 네팔어예배 형제들이 화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교제하고 있다.

양 부르고, 말씀 나누는 2개월여의 시간동안 모두들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 형제들도 현장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교제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실직상태로 센터에서 한 달 동안 기거하는 캄보디아 형제들을 돕기 위해 캄보디아 형제들이 센터에 잠깐 들리기도 합니다. 실직당한

형제를 위해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어 주는데 보기에는 빈약한 음식일지 모르겠으나 서로 위로하며 배불리 먹고도 남을 만큼의 사랑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공장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외국인 성도들을 위해 전화심방과 공장심방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엔젤트리 선물을 아직 가져

가지 못한 외국인들 30여 명을 위해 그들이 일하는 공장을 방문해서 엔젤트리 선물을 전달하고 안부를 물었습니다. 길 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말 반가운 시간이었습니다.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네팔 등지에서 온 외국인 형제들이 예배가 언제 시작하는지, 한국어 수업이 언제 시작하는지 묻습니다. 작년에 이주한 어린이들을 위한 주말 탁구교실을 했었는데 그 아이들도 탁구교실이 언제 다시 시작하는지 궁금해서 계속 물어옵니다.

화성 온누리M센터는 때가 된다면 언제라도 외국인 형제자매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소독은 물론 손세척제, 방문자 기록부, 체온계를 비치하고, 어느 성도님들께서는 외국인 성도들을 위해 마스크와 음식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밖에는 어느덧 개나리, 목련, 진달래꽃이 봄을 알리고, 농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웠던 우리들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복음의 불꽃이 피게끔 일하심을 믿습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 최명현 선교사(화성 온누리M센터)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서빙고 소년 1부 교사가 제자들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귀엽고, 때로는 멋지 기까지 한 너희들을 만나지 못한지도 벌써 5 주째가 되어가는구나. 너희들이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펜을 들어 본다.

선생님은 요즘 너희와 함께 했던 시간들의 소중함을 새삼 깨닫고 있다. 그동안 주일마다 함께 모여 주의 전으로 나아가 너희와 마음껏 예배드리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나날이었는지 너무나 그립구나.

애들아, 잘 지내고 있니?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는 잘 드리고 있니? 온라인 예배지만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면 좋겠구나. 낯설고 어설픈지라도 그 시간만큼은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란다.

늘 예배에 진심으로 참여하던 너희들이기에 선생님은 이 기간도 잘 보낼 수 있으리라 믿는다. 또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는 방법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길 기도할게.

애들아, 선생님은 요즘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드리고 있다. ‘날마다 사순절 성경쓰기’를 통해 성경을 쓰고 있을 너희를 생각하니 감사기도가 절로 나온



김석자 교사가 보고싶은 서빙고 소년 1부 제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다. 또 <예수님이 좋아요>로 큐티를 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을 너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주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더욱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는다. 선생님도 너희를 다시 만나는 그날을 위해 매일 기도하고, 말씀을 읽

으며 준비하고 있을게.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시끄럽구나. 전 세계가 어려움과 혼란을 겪고 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시길 기도할게. 귀엽고 사랑스럽게 웃던 너희들의 웃음과 건강하고 씩씩하던 모습이 참 그립고 보고 싶다. 건

강하게 잘 지내다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데 그날 씩씩하게 다시 만나자.

이럴 때일수록 주님을 향한 그리움과 갈망으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해보자. 우리가 소년부에서 다시 모일 때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많은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죄악들, 그동안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모두 벗어 버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늘 고민하는 너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깊어져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희들이 되기를 바란다. 일평생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곁을 절대 떠나지 않는 단단하고 멋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한다.

사랑하는 소년 1부 친구들,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 매일 기도할게.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꼭 기억하렴.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 늘 하루도 빠짐없이 너희를 사랑한다. 소년1부 파이팅!

/ 김석자 교사(차세대 서빙고 소년 1부)

김포 예수마음교회에서 온



“코로나 극복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안녕하세요. 김포 예수마음교회 이무열 목사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중에 온누리교회와 탈북민사역을 섬기는 한누리통합사역팀을 통해 따뜻한 사랑과 큰 도움을 받게 되어 감사인사를 전하고자 합니다.

김포 예수마음교회는 김포시 양촌읍 양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 방영되었던 드라마 ‘전원일기’의 촬영지로 유명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국민임대주택단지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된 곳입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가정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수급가정, 다문화가정, 탈북민가정입니다. 모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입니다. 하지만 단지 내 혹은 인근에 사회복지시설이나 주민문화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이 없고, 생활기반 시설 또한 부족합니다. 이 이웃들을 품고자 지난 2012년 4월 탈북청소년 10명과 함께 버려진 농가주택을 얻어 시작한 개척교회가 바로 김포 예수마음교회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우고 탈북청소년들을 위해 검정고시 야간학교 ‘꿈드림배움터’를 운영하며 김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들과 탈북민들을 돕는 ‘정착도우미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외국인노동자들과 탈북민 자녀들이 생계를 위한 부모들의 일 때문에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치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육은 물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보며 돌봄과 교육이 절실히 필요함을 깨달았습



김포 예수마음교회 아이들이 후원금을 사용해 선물꾸러미를 제작 김포소방서에 전달했다.

니다.

아이들과 그 가정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지난 2018년 4월 25일 ‘우리두리하나센터 방과후돌봄교실’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두리하나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수는 24명입니다.

5월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센터에 모여 뮤지컬과 악기수업 등을 하며 ‘청소년재능키움교육’을 받고, 고아원이나 양로원, 연탄배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함께 하며 건강하고 바른 다음세대들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민과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낯선 한

국 땅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어우렁더우렁 통일한마당’ 통일캠프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작은 도서관과 실내놀이터, 북카페 등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예수마음교회와 우리두리하나센터가 이처럼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교회와 기관, 지역사회의 도움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교회와 센터 사역에 많은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특히 센터사역 같은 경우 전액 후원금과 교회 헌금 등으로

운영되어 왔기에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중에 북한기독교총연합회를 통해 온누리교회 한누리통합사역팀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자립교회 20곳을 돕고자 하신다는 연락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들을 품고자 하는 온누리교회의 마음과 도움이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보내주신 귀한 후원금과 따뜻한 사랑이 저희 모두에게 너무나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 따뜻하고 귀한 사랑으로 센터에서는 아이들과 함께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가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상가들과 소방서, 경찰서 등을 찾아가 손수 제작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물티슈, 건빵 등이 담긴 선물꾸러미를 전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손으로 조그마한 선물을 전달하고, 서로 감사인사와 함께 “코로나 극복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이라고 외치며 격려하고 응원했습니다.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 도움을 주는 아이들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큰 사랑으로 도움을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과 온누리교회, 한누리통합사역팀에 감사합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 이무열 목사(김포 예수마음교회)



코로나19, 이렇게 극복하고 있습니다

여성사역 '마리아행전 123' 기도

언제부터인가 내 핸드폰에 매일 아침 울리는 메시지가 생겼다.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이다. 기도문의 주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다. 내게 익숙하지 않은 이 기도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정과 교회, 나라에 꼭 필요한 기도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리아행전 123 기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온 나라가 시달려있는 이때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기도문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있다.

나는 평소 기도와 함은 내 안위와 행복을 위한 것인 줄만 알았다.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하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많이 드렸다. 그랬기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라는 주제가 더욱 거창하고 멀게만 느껴졌다. 그런데 마리아행전 123 기도는 눈감고 기도를 시작하면 2분을 넘기기 어려운 나에게 기도의 시작을 알려주었다. 누군가에 의해 쓰여져 공유되는 기도문을 진심을 다해 함께 읽은 후 "아멘"하며 끝마치면 됐다.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않아도 잘 쓰여진 기도문을 따라 읽기만 하면 되니 기도에 대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날아오는 기도문은 나도 모르는 사이 내 기도를 쌓아



이아름 집사 가정은 매일 저녁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

가고 있었다. 하나님은 나보다는 이웃을, 나라를,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셨다.

그럼에도 코로나19 사태가 터지고 우리 가정의 생계가 달린 문제를 직면하게 되니 나의 기도 방향이 발 빠르게 바뀌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세상 사람으로 탈바꿈 하는 것은

한순간이었다. 지금까지 쌓아온 기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뉴스를 통해 세상의 소식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다른 이들에게 분노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 했다. 그러나 매일 울리는 기도문은 나를 다시 평안으로 인도했다. 내 상황보다 더 급한 기도제목들을 보게 하셨다.

또한 내 죄를 깨닫게 하셨다. 회개의 기도와 함께 나라와 민족, 이웃을 위한 기도들이 쏟아져 나왔다. 요즘은 시간을 내어 가족과 함께 마리아행전 123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가족만을 위해 기도할 때보다 더 큰 은혜와 평안이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기도의 힘으로 가족이 더 힘 있게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세상의 멈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셨다. 코로나19 사태로 기도하는 가정을 회복시키고, 길고 긴 어둠의 시간을 빛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셨다.

매일 아침을 깨우는 기도문은 기도하는 자들의 영을 깨웠고, 깨닫지 못하던 나의 죄까지도 주님 앞에 낱알이 고하며 회개하게 하셨다. 나를 변화시키고 온 가족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세상을 위한 기도를 하게 하셨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니 이제야 알겠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매일 새롭게 깨닫는다. 오늘도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린다.

/ 이아름 집사(마포공동체)

CGNTV 가정예배 프로그램

작은 예배에서도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5주째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예배당에 나가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아쉬운 마음도 크고,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던 교제가 정말 그립다. 그동안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지나쳤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했는지 더욱 깊이 느끼는 요즘이다.

어렵고 아쉬운 상황 가운데 감사거리 하나가 생겼다. 바로 가정예배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 예배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사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이 아이들에게 참 미안했다. 아내와 나는 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지 고민만 했지 실천으로 옮기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집에만 머무르다보니 우리는 자연스레 그 일을 시작하게 됐다.

먼저 우리 가족은 아내와 나 첫째 딸 진리, 둘째 딸 자유 이렇게 네 명이다. 어린 두 딸과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고민하던 중에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이하 아빠가)를 만났다.

아빠가를 시작하기 전 아내와 함께 가정예배를 고민하며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지, 집중은 할 수 있을지 여러 고민들을 했었다. 그런데 올해 초 유치부에서 말씀을 듣고 온 진리가 "우리도 집



이정규 성도 가정은 매일 책상에 둘러 앉아 함께 가정예배를 드린다.

에서 가정예배를 드리자"고 먼저 이야기를 꺼냈다. 아내와 나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다. 진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말씀해주시는 것 같았다. 이후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고, 아빠가 촬영을 이어가게 되었다.

처음 촬영을 시작하던 날, 과연 이래서 방송이 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정신없이 예배를 드렸다. 첫째 주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현장에서는 듣지도 못하고 결국 실시간으로 촬영한

유튜브 방송을 통해 확인했다.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생각했던 것보다 쉽지 않았다. 아이들은 집중하기 어려웠고, 그런 아이들을 집중시키려다보니 아내와 나도 감정싸움을 하고 있었다. 어느덧 4주가 지났다. 그 시간 동안 우리 가정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집중하지 못하며 천방지축으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예배에 집중하기 시작했

다. 아이들과 함께 그날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또 내가 맡아 진행했던 자기 전 대표기도는 어느새 진리의 역할이 되었다. 두 손을 모으고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내뱉는 기도의 내용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등이다. 작은 아이들도 진실 되게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며 감동과 감사를 느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그 안에서 보고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 뜻과 생각으로 판단했던 일들을 회개했다. 아이들이 드리는 예배와 기도는 온전치 못할 것이라는 내 생각을 회개하게 하셨다.

아이들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태도와 생각을 새롭게 하고 있다. 아이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운다. 아이들의 예배를 보며 작은 예배에서도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중이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버린 지금, 승리의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승리케 하실 것을 믿으며 나는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흘려보내도록 노력해야겠다. 온 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시 만나 함께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평안하시길 기도한다.

/ 이정규 성도(아빠가패밀리6기)



책 읽어주는 목사

돈이란 무엇인가?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선데이 아텔라 저 | 국제제자훈련원 |
16,000원

수년 전 어머니가 부정맥 수술을 받으셨다.
수술 후 회복 기간을 거쳐 퇴원날짜가 되었다.
퇴원수속을 거치면서 건네받은 수술비 및 입

원비 액수가 나 혼자 부담하기에는 버거웠다.
그래서 누나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흔쾌히 도
움을 받기보다는 병원비 문제로 갈등이 깊어
지게 되었다. 이 갈등 중에 나는 하나님께 물
었다.

“왜 이런 갈등이 생긴 것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네가 돈을 너무 모르는구나.”

내가 돈을 너무 모르고 살아왔다는 가슴 아
픈 지적이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돈에 대해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아픔은 그
아픔이 아니면 배울 수 없기에 찾아온다는 말
이 생각났다. 나는 돈에 대한 아픔을 통해 돈
에 대해 배워야겠다고 굳게 마음먹고, 돈에 관
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이 책은 나에게 돈을 알게 해 준 책이다. 저
자는 선데이 아텔라 저 목사다. 나이지리아 빈
민촌에서 태어난 그는 12살 때까지 신발을 신
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절대 빈곤층에 속한 사
람이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소명을
깨닫게 되었다. 그 소명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
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쓰임 받는 것이었다.
가난의 문제는 결국 돈의 문제였다. 돈을 잘
벌 수 있어야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돈

을 잘 쓸 수 있어야 가난에서 벗어나게 도울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는 돈의 문제를 태도와 지식과 훈련의
문제로 제시하고 있다. 먼저 저자는 돈을 ‘소
명에 따른 태도’의 문제라고 본다. 돈이 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사용하는 것
이다. 이를 위해 중요한 것이 바로 소명이다.
소명은 돈을 사용하게 만드는 근원적 힘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돈 문제에 대한 위계적 질서
를 누차 강조한다. 그것은 소명, 그리고 돈이
다. 돈은 어디 위치해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
이 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한다.

그 다음으로 저자는 돈을 ‘배움에 따른 지식’
의 문제로 본다. 돈이란 무엇인가? 돈을 버는
기본 법칙은 무엇인가? 왜 저축이 필요한가?
왜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가?
참된 부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 모두가
돈에 대한 바른 지식에 해당된다. 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할 때만 돈을 잘 벌 수 있고, 돈을 유
지할 수 있고, 돈을 잘 쓸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돈을 ‘실천에 따른 훈련’
의 문제로 본다. 돈은 버는 것보다 버는 과정
이 중요하다. 버는 과정 중에 터득되는 자질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자질을 훈련받지 못하면 돈

을 잘 벌수도 없고, 돈을 유지할 수도 없고, 돈
을 잘 쓸 수도 없다. 따라서 실제로 돈 버는 기
본 법칙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
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한다. 이것들을 실천하
면서 훈련받아야만 그에 따른 자질을 얻게 되
며, 그 자질을 갖추는 것이 돈을 관리하고 유
지하며 사용하는 힘이 된다는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며 나에게 일어난 변화는 두 가
지다. 하나는 돈을 알게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며 내가 돈을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지
를 철저히 깨달았다. 또 하나는 실제로 재정설
계를 바꾸게 되었다. 수입과 지출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해서 통장을 대대적으로 정리하여
저축액을 설정하고, 지출액을 절제할 수 있도
록 재정설계도를
완전히 바꾸었다.
나는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당신
에게도 이러한 변
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고 이
책의 일독을 권한
다.



한화수 목사
(동작공동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평생을 전염병과 싸운 ‘의사 전종휘’

크리스천은 누구이며,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 예수님이 그 모델이다. 그래서 크리
스천의 정체성이자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
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훈련이 있다. 삶의 아주 작은 선택의 순간에도 “예수님이라
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하는 것이다.

의학계에서는 전염병이 돌 때마다 떠올리는 인물이 있다고 한다. 바로 의학계의 큰
스승이라 불리는 ‘전종휘’다. 그는 평생 전염병과 사투를 벌였던 의사였다. 의사로
살면서 돈과 명예를 모두 얻고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늘 사람에게 온 마음을 쏟았
다.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
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의 삶에서 사람에 대한 긍휼함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평생을 바쳐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전종휘의 헌신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
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의사 전종휘

흑하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다. 서
울에 무시무시한 전염병들이 창궐하던 그 시

“나만큼 사망진단
서를 많이 쓴 의사
가 또 있을까?”

1934년 수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전염
병 환자들을 돌보던
의사 전종휘가 한
말이다. 일제강점기
검찍했던 그 시절
우리나라를 더욱 참

절, 그곳에 의사 전종휘가 있었다. 1930년대
전종휘는 전염병원이었던 순화병원에 재직
중이었다. 당시 기사를 보면 경성은 ‘전염병
의 도시’로 불렸다. 해마다 전염병 환자가 2천
명을 돌보았다. 환자들의 고통과 비명소리를
들으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지만
전종휘는 이 시간을 “의사로서의 삶 중에서
가장 보람 있었던 시기”로 꼽았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은 그야말로 전염병의
천국이었다. 해방 이듬해인 1946년 천연두가
대유행해 2만 명이 넘는 환자가 발생했다.
1946년 5월에는 콜레라가 돌았다. 이때 환자

가 1만 5천 명 넘게 발생했고, 사망자가 1만
181명이나 됐다. 이 외에도 장티푸스, 발진푸
스, 일본뇌염 등과 같은 전염병들이 줄줄이 생
겨났고,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
가 들려왔다. 항생제도 없고, 전염병 환자 대
응도 미흡하던 그 시절 전염병 분야는 의사들
에게도 기피 대상이었다. 모두가 전염병 앞에
벌벌 떨며 도망하려던 그때 전종휘는 전염병
과 정면으로 맞서 사투를 벌였다. 자신에게 배
속된 강사 1명, 조수 1명과 함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염병내과’를 출범시킨 것도
이때였다.

전종휘는 항상 전염병과 사람에게 온 관심
을 쏟았다. 일요일이면 늘 교회에 나가 예배를
드리고, 환자들을 위해 기도했다. 돈이 없어
치료 받지 못하는 이들, 가난하여 위생의 개념
조차 없던 이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기 위
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1949년 발생해 5천여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그 중 절반의 목숨을
앗아갔던 일본뇌염 유행 당시 전종휘는 일본
뇌염의 정체를 알아내려고 기를 썼다. 부검 동
의를 얻기 위해 사망자 가족들을 만나러 다니
며 온갖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는
늘 환자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
에서 중요한 부검 예를 얻어 국내 최초로 뇌염

바이러스를 분리해냈다.

1951년에는 경성의학전문학교 선배였던 장
기려 박사를 따라 복음병원에서 환자들을 돌
봤다. 무료로 진료를 해주는 병원에는 늘 환자
들이 몰려들었다. 매일 100명이 넘는 환자들
이 찾아왔고, 200명이 넘는 날도 허다했다. 잠
도 자지 못하고 환자를 돌보았지만 전종휘는
이 시간 역시 “의사로서의 인생에서 가장 보
람 있던 시기”라고 고백했다. 환자들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다.

전종휘는 사람의 귀함을 아는 의사였다. 그
는 보건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보건
비가 가축위생관리비는 9억원인데 반해 사람
의 것은 6억원도 못 된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분통을 터뜨리는 그의 앞에서 당시 담당 공무
원이 “어린이가 사망하면 부모들이 시원섭
섭한 정도에 그치나 기르던 소가 병들어 죽으
면 온 일가친척이 모여 통곡하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전종휘는 ‘돈보다 사람
이 먼저’라는 생각으로 일평생 전염병으로부
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노력을 했다.
1970년 콜레라가 다시 유행할 때에는 콜레라
를 ‘빈민병’이라 부르며 “예방접종만 할 것이
아니라 펌프나 수도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급
선무”라고 호소하며 전염병으로부터 사람들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KOREA 복음연합

TGC KOREA '코로나19'에 관한 아티클

교회는 팬데믹에 어떻게 반응해 왔는가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군중 사이에서 일어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몇 세기만에 서구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은 로드니 스타크(Rodney Stark)가 쓴 책 <기독교의 발흥>에 달린 부제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기독교의 성장 요인을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는데, 그중 한 요인이 바로 전염병이다. 정말로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군중 사이에서 일어난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발흥하게 됐는지를 이해하려면 전염병의 확산에 교회가 얼마나 눈에 띄게 대처해 왔는지를 파악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 나는 지난 역사에서 일어난 네 번의 팬데믹, 즉 세계적인 전염병 현상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현상에 대처해 왔는지를 설명하려고 한다. 각각의 사례를 살펴볼 때 (혹시 현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 스스로 적응할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신앙을 통해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고양되는 변화가 있길 소망한다. 왜냐하면 저들이 용기 있게 희생을 감수하며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간 모습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방불케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사랑도 바로 그와 같이 큰 희생을 요구한다. 더불어 우리 자신이 병을 옮기는 당사자가 될 수도 있는 이 시대에는 저들이 보여 준 지혜가 더욱 사려 깊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난 역사를 살펴볼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셔서 바른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우시길 구한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심령도 깨어나 믿음, 소망, 사랑을 추구하게 되길 바란다. 그리하여 작금의 팬데믹을 겪는 우리 모두가 세상의 시선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그 지혜를 올바르게 발휘하게 되길 소망해 본다.

알렉산드리아 주교 디오니시우스(Dionysius)

주후 16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Marcus Aurelius)가 로마 제국을 통치하던 시절, 전염병이 발생했다(혹자는 이에 대해 천연두라고 추정한다). 약 15년간이나 지속된 그 병은 제국의 1/4 내지 1/3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스타크의 추정에 의하면 당시 기독교 인구는 4만 5천 명 정도였고, 이는 전체 인구의 0.08%에 불과했다. 이 미약한 수치에도 불구하고 전염병 확산에 대한 교회의 대처는 세상의 칭송과 커다란 호응을 얻어내었다. 당시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였던 디오니시우스는 이러한 보고서를 남겼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 형제 중 대부분은 끝없는 사랑과 성실로 자신의 몸을 사리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생각하였다. 큰 위험을 무릅쓰고 환자들을 도맡아 온갖 필요를 돌보며 그리스



도의 본을 따라 섬기다가 때론 저들과 함께 평온한 행복을 바라며 이생을 마감하기도 했다. 다름 아닌 이웃의 병환을 짊어지며 기꺼이 그 고통을 끌어안다 자기들까지 감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형제가 것처럼 다른 이들을 간호하고 치료하다 환자들을 따라 죽거나 그들을 대신하여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듯 타인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끌어안은 모습은 그리스도와 흡사했는데, 이는 교회 밖에 있던 다른 이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디오니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글을 이어갔다.

“그런데 이교도의 모습은 완전 달랐다. 그들은 누군가 병들어 아프기 시작하면 멀리 떠났으며,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도 도망쳤다. 죽음을 맞이할지 몰라 어디에도 관여하지 않거나 누구와도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모든 방법을 동원해 주의를 기울였으나, 그들이 죽음을 피해 달아나는 쉽지 않았다.”

전염병은 죽음과 같은 인생의 귀로를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우리 모두가 죽음을 피할 수 없으며 약하고 덧없는 존재일 뿐임을 알려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염병은 반문화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해 준다. 2세기 당시 교회도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 주며 저들의 칭찬을 얻고 그들로 하여금 회심케 만들었다. 이와 같은 모습이 한 세기 후에 다시 펼쳐지게 된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Cyprian)

스타크의 추정에 의하면 주후 251년 기독교 인구는 120만 명에 조금 못 미쳤는데, 이는 제국 전체에서 1.9% 정도에 해당했다. 2세기 때와 비교하면 놀라운 성장이었지만, 여전히 교회는 제국의 마이너그룹에 속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타깝게도 또 다른 전염병이 발생해 교회의 앞길을 가로막았다. 그 전염병은 아마

도 홍역이 아니었을까 추측되는데,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질병이었음에도 사망률은 한 세기 전과 마찬가지로 매우 높았다. 이탈리아의 여러 마을이 버려졌고, 어떤 마을은 영원히 발길이 끊어지기도 했다. 로마의 군대와 기관 시설은 전반적으로 쇠퇴했다. 바로 이 시련의 한 복판에서 또 다시 그리스도인이 빛을 발하게 되었다.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안은 이렇게 기록했다.

“이 무섭고 치명적인 유행성 역병이 우리 가운데 정의로운 사람을 찾아내고 인간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니 이 얼마나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일인지 모른다. 건강한 사람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일이든, 동족 간에 마땅히 그래야 하듯 서로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일이든... 의사가 환자를 버리지 않고 돌보는 일이든 간에 말이다.”

전염병은 우리를 수색한다. 우리 안에 (자기만 보호하려는) 육신의 방식이 자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를 희생하려는) 성령의 방식이 자리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3세기에 발생한 그 전염병은 교회 안에 있는 자들, 즉 성령에 이끌려 앞선 주인이 걸어간 길을 기꺼이 따르려는 자들을 세상에 드러내었다. 그리스도인의 치사율은 일반인의 치사율보다 훨씬 낮았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이, 환자를 돌보는 자의 입장에서 감염될 위험에 처하는 결과를 낳았고, 감염된 자의 입장에서는 생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죽음에 노출시킴으로써 더 풍성한 생명을 누렸다. 전염병이 휩쓸고 지나갔지만, 그들은 더욱 강해졌다. 더욱 강력한 사회의 일원이 되어 더욱 많은 수가 생존했다. 그 회복력도 더 강했는데, 다름 아닌 죽음 앞에서도 확고한 소망을 지녔기 때문이었다. 공동체로서도 더 강해져서 각자가 직면한 고통을 통해 서로에 대한 결속이 더욱 끈끈해졌다.

이처럼 세상의 이목을 받지 못한 소외된 운동으로 시작된 기독교가 어떻게 주후 300년경에 이르러 6백만 명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로드니 스타크는 전염병 확산이 그 주된 요인 중 하나였다는 답변을 제시한다.

비텐베르크의 마틴 루터(Martin Luther)

14세기부터 흑사병이 유럽을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불과 5년 만에 유럽 인구 절반이 사라졌고, 그중 도시 지역은 감염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이러한 역병은 이어지는 세기에도 반복적으로 발생했는데, 1527년 비텐베르크를 강타한 전염병도 거기에 포함되었다. 이에 수많은 자가 도망쳤다. 그러나 루터와 당시 임신 중이던 그의 아내 카타리나는 남아서 아픈 자들을 돌보았다. 마태복음 25장 41~46절을 자신들의 지침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존중해야 한다. ‘내가 병들었을 때에 너희가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 서로에게 묶여 있어 누구도 고통 중에 있는 다른 사람을 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자 할 때 기꺼이 그를 돕고 거들어 줘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루터는 도망가는 일이 용인되던 당시의 상황을 언급한다. 그는 자기 의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의 성향을 알고 있었기에 스스로와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타인을 판단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만 자신의 신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남겼다.

“이제 우리만 몇몇 집사들과 더불어 남았으나 그리스도 역시 함께 계시므로 우리만 남았다고 해선 안 되겠지요. 저 옛 뱀, 살인자, 죄악의 장본인인 사탄과의 싸움에서 그리스도는 반드시 승리하실 거요. 그분의 발꿈치를 저가 얼마나 상하게 하였든 말이지요. 다만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바라며.”

여기서 우리는 루터의 사고 속에 사탄과 그리스도가 얼마나 뚜렷이 대조되고 있는지 주목해야 한다.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며(여기서 루터는 창세기 3장 15절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전염병 배후에 있는 자로 인식되고 있다.

그와 달리 그리스도는 훨씬 더 강력한 분으로, 훨씬 더 현재 상황 속에 깊이 관여하는 분으로 인식된다. 그분은 아픈 자들을 돌보는 이들 가운데 계시면서 또한 아픈 자들 가운데도 계신다(마 25장). 또한 사탄과의 싸움에서 교회가 이겨 마침내 거머쥔 승리 가운데도 계신다. 그 승리에는 전염병에서 회복되는 일처럼 작은 의미의 구원사건까지도 포함된다. 이처럼 루터와 카타리나는 살아남아 그 극심한 시련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 주었다.

런던의 찰스 스펔전(Charles Spurgeon)

1850년대까지 런던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부유한 도시였으며 인구도 2백만 명을 넘었다. 그러다가 1854년에 콜레라가 발생하며 런던 시민들의 마음에 공포감이 조성되었다.

당시 스무 살밖에 되지 않던 찰스 스펔전은 뉴파크스트리트 교회(New Park Street Chapel)의 목사로 부름을 받아 영국의 수도로 가게 되었다. 훗날 그는 당시의 전염병이야말로 자기 자신과 런던이라는 도시를 알아갈 수 있는 중요한 모멘트가 되었다고 회고한다.

“우리의 마음이 민감하게 각성되는 때가 있다. 바로 죽음이 도처에 널려있을 때이다. 내가 처음으로 런던에 왔을 때 얼마나 깊은 절망 속에서 사람들이 복음에 귀를 기울였는지 떠오른다. 콜레라가 무서울 정도로 기승을 부리

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절에는 가볍게 조소하며 설교를 듣는 이가 거의 없었다.”

스펙전은 그 당시 죽음을 앞두고 있던 한 사람을 방문하게 된 이야기도 들려주는데 그는 자신의 사역을 심히 반대하던 자였다고 한다.

“그 사람은 생전에 나를 늘 조롱하던 자였다. 더 격하게 표현하자면, 나에 대해 위선자라고 하며 공공연히 비난하고 다닌 자였다. 그러던 그가 죽음의 화살을 맞게 되자 곧바로 나를 찾으며 상담해 주기를 요청해 왔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사실에 대한 일말의 의심도 자리하지 못했다. 비록 입술로는 그 사실을 고백하진 않았더라도 말이다.”

세상의 기반은 늘 흔들리고 위태롭다. 하지만 그러한 위기는 종종, 인생의 진실을 드러내는 폭풍을 동반하기 마련이다. 스펔전은 당시 전염병이 수많은 이들을 휘몰아쳐 유일한 반

석 되시는 그리스도를 찾아 도망치게 만드는 폭풍이라고 생각했다.

분명 이 시대는 이전과는 다르다. 그 차이가 있게 하는 여러 요인이 있다. 가령 현대식 병원이 등장하기 전에는 전문적으로 특화된 의료시스템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또 앞선 세대는 환자를 돌보며 그 병이 어떻게 전염되는지에 관한 지식도 거의 갖추지 못했다. 환자를 돌보는 사람이, 심지어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병을 옮기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데 말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사랑하려는 대상에게 병을 옮기기보다 차라리 자가 격리하는 편이 사랑을 실천하는 최선의 방법일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시대에 따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사랑 자체가 여전히 우리가 추구할 최고의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다. 자기중심적인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

하는 사랑이라면 말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 줘야 한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세계 시장은 불확실하며,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일깨워 줘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폭풍을 잠잠케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유일한 반석 되시는 그분을 세상에 전파하며 영화롭게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며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 시련의 때 다시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나라를 넓혀가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도한다.

/ Glen Scrivener(Speak Life 대표)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예배의 의미

최근 몇 주간 나는 여러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극심한 혼란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이 교회론적 난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었기 때문이다. 교회의 의미는 무엇일까? 두려움과 불확실성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우리의 결정이 지혜로운 걸까 지혜롭지 못한 걸까? 우리의 행동은 올바른가 아니면 무분별하게 행하고 있는 걸까?

혼돈의 상황 속이지만 3월 말에 책 한 권을 출간할 예정이다(〈Analog Church〉, 3월 31일 출간 예정). 이 책에서 나는 교회는 지금까지 항상 아날로그 공동체였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주장했다. 각자의 공간에서 실시간으로 교제하기 위하여 디지털로 연결되는 편리함 대신 아날로그로 모이는 수고를 하는 공동체라는 말이다. 하지만 요즘 비디오와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에 대한 논의가 조금 더 낱설고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이에 최근에 발전되고 있는 상황을 조명해 보면서 불안하지만 앞으로 다가를 날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 보았다.

편리가 아닌 조율

빠르게 급증하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많은 교회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했다. 성도들에게 이를 독려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자 꼭 필요한 대안이라고 보고 있다. 세계 곳곳의 정부가 대규모 집회 금지를 지시하고 있으며 우리도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상황은 내가 사는 곳과 섬기는 곳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 지역 대학교는 이번 학기 남은 기간에 강의실 참석 수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 공립학교도 같은 결정을 했다. 우리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교단들은 이러

한 방향을 강하게 권하여 직접 참석하는 모든 규모의 집회를 중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현재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최소화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 보인다.

그래서 회중을 온라인 공간으로 인도해야 한다면, 회중에게 디지털 예배의 현실이 편리하지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인 방편임을 명백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점을 명백하게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나중에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할 것이다. 편안한 집에 앉아서 TV와 컴퓨터로 설교를 시청하는 것은 분명 편리할 것이다. 이러한 편리함은 오랫동안 훈련을 통해 형성된 예배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예배하지 않았던 때로 되돌려 놓을 수 있다.

예배당의 공간에 함께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믿는다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특정 상황에 일시적으로 행하는 것으로 보아야만 한다. 우리가 직접 모여 예배할 수 있을 때까지만이다.

여행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을 보며 대화하는 시간이면 나는 온라인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지만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집에 도착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고, 실제로 손을 잡고, 안아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라인 예배는 임시로 행하는 대안이라는 입장에서 행해져야 한다.

시간과 매체를 선택하기

잠시지만 새롭고 낯선 디지털 현실 세계에 당면한 우리에게서는 시간과 매체를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온라인으로 예배해야 하는 동안 공동체가 직접 얼굴을 마주할 수는 없지만,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다시 구성해 보는 기회로 삼을 수는 있다. 진실로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강조하고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더욱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말이다.

대부분의 실시간 방송 플랫폼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이 기간에는 평상시 주일예배보다 좀 더 대화적인 방식으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다.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이 설교 후에 대화로 이어지는 방법을 도입한다면 이 기간에 성도들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것이다. 온라인으로 눈과 귀만 빌려서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질문으로 소통함으로써 디지털로 분리된 세계를 연결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정한 시간에 성도들이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실시간 집회를 강화할 수 있으며, 온라인 예배라고 언제나 원할 때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바꿀 수 있다.

기도에도 유사한 접근을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기도를 나누도록 격려하는 것은 대부분의 온라인 교회들이 이미 실행하고 있다. 디지털 거리의 깊은 골을 넘어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몸이 실제로 함께하여 기도할 때 느끼는 강도보다는 약할 수 있지만, 떨어져 있는 동안 서로를 사랑하는 강력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잘 이루어지면 교회 생활에서 곁돌고 있는 성도들을 연결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해질 수도 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이미 대규모, 소규모 모임, 흠뻑의 역동적이고 유기적인 모임이 존재한다. 대규모 주일예배 모임이 있는가 하면, 도시 전체에서 인근 지역과 마을 별로 흠뻑 모여 모이는 소규모 그룹도 있다. 예기치 못한 이 기간에 우리는 소그룹으로 주중에 모이도록 하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 모임을 독려할 수 있다. 대규모로 모일 수 없

지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소규모로 그리고 흠뻑 모여 모일 수 있다.

서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기

이러한 시기에 크리스천은 보통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요일 4:18)라는 성구를 많이 암송한다. ‘온전한’의 헬라어는 ‘teleia’이며, 여기서 “궁극적 종말 혹은 목적”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telos’가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려움을 내쫓는 사랑은 우리의 두려움이 끝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랑이다.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우리는 결국 죽게 되어 있다. 우리는 흠으로 지어졌고 흠에서 와서 흠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에 머물지 않는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 소망이다. 이것이 교회가 계속 모여서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며, 섬기고, 성찬의 떡과 잔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다. 미래의 소망을 실제로 몸으로 구체화하고 미리 행하는 방법이다.

현재 상황이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한 공간에서 함께 모이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우리는 지혜롭고 책임감 있게 행해야 한다.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말이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쓸 수 있다”(살전 2:17).

/ Jay Kim(Vintage Faith Church 리더십 담당교역자)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시리즈_재난을 이기는 영성 2.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과 기도

그리스도의 지상에서의 삶을 완전하게 구현하기를 갈망했던 아시시의 성자 프란치스코는 수도생활 동안 한센병(나병) 환자들에게 봉사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는 구약의 이사야에서 묘사하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인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나병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그들을 돌보았고, 수도원의 형제들에게도 세상에 다니면서 만나는 나병 환자들을 잘 돌볼 것을 명령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의 육신의 병을 고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혼도 치유하신다는 것을 믿으며 나병 환자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프란치스코는 너무 괴팍해서 다른 사람들이 돌볼 수 없는 나병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그 환자에게 악령이 들렸음을 알았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 후 향기 나는 풀을 끓인 물로 그 환자의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거룩한 손이 나병환자의 몸에 닿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 프란치스코의 손이 닿는 곳의 모든 상처가 사라지고, 피부가 깨끗하게 나은 것은 물론이고, 내적으로도 영혼이 치료되면서 그 환자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슬프게 울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염병을 비롯한 모든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육체치료와 함께 영혼의 치유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최흥종 목사, 한센병 환자들의 아버지

한국 기독교 영성이 가운데 나환자들의 아버지로 칭송되는 최흥종 목사(1880~1966)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입니다. 금욕적 영성과 사회적 공동선 실천을 균형 있게 살 고자 했던 모범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1914년 평양신학교에 입학하여 목사가 된 후 그는 광주 양림교회에서 목회하며 광주 YMCA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한센병 환자(나병환자)가 많았는데 사람들이 감염을 두려워하며 돌을 던지던 한센병 환자를 의사였던 포사이트(Wiley H. Forsythe) 선교사가 자신의 나귀에 태워 광주까지 데리고 오고 직접 부축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 사랑의 위대함을 깨닫게 된 최흥종 목사는 평생을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나환자근절협회’를 창설해 나환자들을 돌보았고, 40명이 지낼 수 있는 최초의 나환자 집단정착촌을 지어 서로 위로하며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었습니다. 당시 전국의 한센병 환자가 1만 8천여 명에 이르렀지만, 그들을 돌보는 시설은 2,400명만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 건립한 나환자 병원으로 전국에서 나환자들이 몰려들면서 결국은 여수로 옮기게 되는데, 이곳이 오늘날의 애양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정착할 곳이 없었던 나환자들의 주



나환자들의 아버지로 불린 ‘최흥종 목사’ (왼쪽)와 영국의 영성가 ‘노리치의 줄리안’ (오른쪽).



**“자기를 넘어 타인 향한 환대, 이웃과 공동체 유익 구하는
공동체적 영성 함양과 사회적 공동선에 참여해야 합니다.
공홀과 연대, 용납과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거지 마련을 위해 ‘구라행진(求癩行進)’을 단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환자들과 함께 광주에서 서울까지 행진하여 조선총독부 앞에서 집단시위를 한 일인데, 시작할 때 150명이었던 행진단은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400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소록도에 있는 나환자 수용소의 시설 확장과 치료 및 갱생의 길을 열어 달라고 요구하여 그 결과로 오늘날의 소록도 나환자 갱생원 설립의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3.1운동 주동혐의로 1년 4개월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던 최흥종 목사는 명예옥, 물옥, 성옥, 식옥, 종교적 독선까지 ‘다섯 가지 집착으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오방’을 자신의 호로 정했고, 무등산에 오방정을 지어 홀로 살면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지상에서 살 만큼 살았다고 생각하자 1966년 2월 10일부터 단식에 돌입하여 95일 만인 5월 14일 하늘로 떠났습니다. 자신과 가정의 삶보다는 나환자들과 부랑자들을 껴안고 살았던 그의 장례식은 광주 최초의 시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그의 삶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뜻에 더 민감한 사람의 예수 사랑은 어떤 장애물도 이겨나가는 힘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재속 수도생활, 세상 속에서 수도자처럼 기도하며 살기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예배조차 어려워지면서 개인 영성생활과 가정에서의 신앙훈련의 필요성이 특히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재속 수도생활(재가 수도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시간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으로 채울 수 있을가에 대한 갈망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영성가들 가운데에도 전염병의 시기에 사람들과 떨어져서 기도생활을 깊이 하는 중에 영성가로 형성되는데 중요한 영적 체험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로울라의 이나시오가 만레사 동굴로 간 것도 당시 파진 흑사병 때문에 예정했던 길을 갈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레사 동굴에서 보낸 1년간의 기도와 신비경험은 그의 영성에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것이 잘될 것이다 (All shall be well)”라는 계시를 받은 것으로 잘 알려진 영국의 여성 영성가 노리치의 줄리안(1342년 출생)이 활동한 때는 흑사병으로 유럽 인구의 1/3이 사망하고, 영국 인구는 절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흑사병 외에도 십자군 전쟁 후 민생의 파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1337~1453), 영국의 정치적 혼란들로 인해 매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줄리안은 평신도 여성 신비가였습니다. 1373년 5월 13일 병으로 사경을 헤매던 줄리안은 16가지 환상을 보게 되고, 이때부터 줄리안 교회에 부속된 집에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이 계시들을 토대로 기도와 영성지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그녀의 이름이 줄리안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줄리안은 침묵과 기도로 일과를 보내면서 자신의 거처에 나 있는 작은 창문을 통해 영성지도나 충고를 구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며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를 전했습니다. 줄리안은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자원하여 인간이 되시고, 고난 받으셨으므로 자신도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동일하게 경험하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환상을 통해 그녀는 예수님의

수난을 직접 경험하면서 그 수난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사랑으로 인해 죄와 고통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만물의 궁극적 회복에 대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절망과 두려움이 만연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희망의 미래를 가져올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평신도들 가운데 세상 속에서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 안에서 그들의 가정과 직장생활을 유지하며 자신들의 고유한 소명을 감당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wig는 일에 헌신합니다. 대한성공회에서도 2005년에 재속회를 설립하여 열심 있는 평신도들이 소속감을 더 굳게 하고 각자의 영성을 깊게 유지하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세상에 투신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들은 재속회 회원들이 일상의 삶을 영위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실히 살아가도록 기도와 교육을 통해 영성 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주는 교훈,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가?

코로나19가 주는 교훈은 어떤 영성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모두 동참해야 하는 시기이지만, 중보기도와 상호 돌봄 등을 통해 마음으로는 더욱 가까워지는 영적 접촉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거룩한 성령님의 만지심이 병든 육체의 치료와 함께 상처 입은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자기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회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정체성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질의 필요로움에 안주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태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허함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성장에 관심을 두는 영성생활을 더욱 열심히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기도훈련과 말씀 묵상, 이웃과 공동체를 위한 중보기도를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자기를 넘어 타인을 향한 환대, 이웃과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공동체적 영성을 함양하고, 사회적 공동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홀과 연대, 용납과 감사를 생활화해야 합니다. 일상 속에서의 이런 실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충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 김경은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신학적 성찰시리즈

재난의 시대에 대한 신학적 성찰

재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더구나 전 세계를 덮치는 이러한 재난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재난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 아니라면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오래된 신정론(神正論, theodicy)적 질문은 이렇게 묻는다.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물론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악의 창조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으며, 창조하신 만물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다(창 1:4, 10, 12, 18, 21, 25, 31). 전통적인 신학은 선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자유로운 의지에 의하여 타락하여 악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 개혁신학 전통은 주권적이고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만, 동시에 제2원인들(피조물들 사이의 인과관계에서 원인에 해당하는 것들)의 자유와 우연성도 인정하고 있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5.2). 그러나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무한하신 선하심을 따라 그러한 것들도 그 거룩한 목적을 따라 사용하신다고 믿는다(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 5.4).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지만, 우리는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종말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중간 기적 삶을 사는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을 묵도하게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맞보고 누리면서, 또한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의 완성을 희망 가운데 바라본다.

재난과 인간의 책임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악 혹은 고통에 대하여 논할 때, 우리는 종종 악을 자연적 악(natural evil)과 도덕적 악(moral evil)으로 나누어 이야기한다. 도덕적 악은 인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으로서 잔인하고 불의하며 악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위이다. 자연적 악은 인간의 의지나 행위와 상관없이 발생하는 악으로서 지진, 화산폭발, 폭풍, 가뭄, 홍수 등을 뜻한다. 그런데 자연적 악이나 도덕적 악으로 모두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것은 인간의 기술문명의 발전 때문에 야기되는 재난 혹은 악이다. 필자는 이것을 ‘기술문명적 악(techno-civilizational evil)’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구별하는 이유는 이러한 악이 겉모습은 경우에 따라, 자연악 혹은 도덕적 악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책임은 몇몇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국가공동체 혹은 인류공동체 전체에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류의 악을 자연악으로만 여기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요, 도덕악으로 치부하면 몇몇 특정인들에게만 책임을 돌린 채 근본적인 문제를

를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술문명적 재난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적인 책임 의식을 느끼고 함께 돌이키고(회개하고), 함께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큰 재난, 혹은 인류의 멸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리는 인류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질병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그런데 그런 질병들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즈음 창궐하는 새로운 질병들이 본래 그 바이러스가 인간에게는 없고 야생동물에게 있었는데, 어떤 변이과정과 중간 숙주를 거쳐 사람에게도 전파된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박쥐에게서 나온 것으로 판단하는데, 사태의 발원지가 중국 우한의 재래시장이 맞다면, 결국 이것도 인간이 돈벌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고 함께 돌이키고(회개하고), 함께 우리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바꾸어 가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 큰 재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 박쥐를 잡아가다 팔고, 그것을 도축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상인이나 구매자들에게 감염되었을 수 있다고 본다. 박쥐는 종범이고 인간이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의 발생 원인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처럼 전 인류에게 책임이 있는 문제인지는 아직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서도 분명한 것은 인간이 탐욕으로 자연환경과 야생동물의 세계, 아니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함부로 파괴하고 착취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점에 대하여도 회개하며 기도해야 하겠다.

재난은 피해자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가?

대재난을 만날 때, 특히 기술문명적 대재난들을 만날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그것은 인간의 죄에 대한 징벌 혹은 심판인가? 이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문제이다. 성경은 지진, 기근, 가뭄, 메뚜기, 전염병 등의 대재난이 하나님의 징벌로 주어지는 사례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출애굽 때에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이 그렇게 이해되었으며(출 7:4),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하고 드린 기도의 내용도 그러하였으며(왕상 8:35-40), 우상숭배와 불의하게 힘없는 이들을 압제하던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예언자들의 경고가 역시 그러하였다(사 24:1-6, 렘 4:23-26, 암 8:1-10). 사실, 종교인들의 이런 식의 해석과 반응은 고금동서에 드문 일이 아니었다. 신

약성경의 예수님도 질병이나 재난이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전적으로 부정하시는 것 같지는 않다. 베데스다 못가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주신 후, 그를 다시 만났을 때, 주님은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요 5:14).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다. 날 때부터 시각 장애인이던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장애인으로 난 것이 자기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은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요 9:2-3)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난과 죄를 관련지으실 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부분이 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사람들이 재난을 당했을 때, 피해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재난을 당했을 것이라

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셨다. 우리는 누가복음 13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도덕적 악과 기술문명적 악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으므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열여덟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눅 13:1-5).

아마도 갈릴리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던 날, 성전 구역에서 로마 군인들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 일어났던 모양이다. 이것은 하나의 도덕적 악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피해 당사자들의 죄의 문제를 전적으로 부정하지는 않으신다. 그러나 예수님은 초점을 그들의 죄가 아니라, 질문한 사람들의 죄의 문제로 옮겨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셨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 자신이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가해자인 로마 총독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는 보편적인 회개를 촉구하셨다. 그 사건은 아직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삶을 개혁하라고 도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예수님은 질문자들이 말하지 않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신다. 그것은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다. 당시에 무슨 지진 같은 천재지변에 대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는 자연악이 아닌 것 같다. 그렇다고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망대를 허물었다는 이야기도 없는 것으로 보아 도덕적 악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것은 망대의 부실공사가 초래한 일종의 기술문명적 악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문제에 관하여서도 앞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해한 도덕적 악에 관한 것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신다. 역시 피해자들의 죄의 문제를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문제의 초점을 질문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로 옮겨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다.

기술문명적 재난이나 기술문명적인 악은 인간의 악의에 의해서 초래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발생의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람들의 죄에 대한 징계나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더 큰 재난에 대한 경고로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매우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결코 재난의 피해자들을 정죄하고, 그들만의 회개를 촉구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죄를 깨우치고, 모든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셨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재난을 당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가 심판자인 것처럼 그들의 죄에 대하여 정죄하고 저주하고 혐오하고 차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중국인이나 일본인의 한국인 혐오, 서양인의 동양인 혐오, 한국인의 외국인 혐오 등은 매우 우려스럽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만이 죄인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회개할 죄인이다. 그러므로 재난 상황에서 우리 모두는 우리 각자의 죄를 살펴보고 회개하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재난을 당하여 처절한 고통을 당하는 우리 이웃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며,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위로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능히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재난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과 관계없이 하늘에서 홀로 유유자적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시며(빌 2:6-11),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사랑과 섬김의 현장에 현존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 현오한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예수병원에 가면 살 수 있다”

선교사와 조선 교회 그리고 전염병

조선 교회사(史)가 곧 한국의 근대화다. 기독교가 한국 근대화를 이끌었기 때문이다. 기독교가 조선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한국의 근대화는 불가능했거나 아주 많이 늦춰졌을지도 모른다.

한국 근대화의 중심에 기독교가 있다. 서양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이 한국 근대화의 씨앗이요, 원동력이기 때문이다. 조선에 들어온 서양 선교사들은 의료와 교육, 여성운동과 계몽운동, 상업장려운동과 독립운동 등을 이끌면서 우리 민족의 기적 같은 역사를 써 내려갔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은 그 아름답고 빛나는 조선의 선교 역사를 분명히 직시하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능히 감당했던 신앙의 선배들을 따라 사명을 다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다. 이번 순서에서는 기독교가 조선의 의료발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례를 나누고자 한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콜레라를 막아준다고 생각했던 고양이 부적(왼쪽), 세브란스병원에서 수술 중인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오른쪽).



19세기 조선의 위생수준은 참담했다. 오수가 뒤섞인 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백성들이 사머니즘에 가까운 민간요법을 맹신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서양에서 온 의료선교사들은 해마다 조선에 도는 유행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 하수와 상수가 구분되지 않은 식수를 지적했는데, 조선인들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실학자 박제가는 이렇게 한탄했다.

“한양에는 수레가 없어서 오물을 쉽게 퍼가지 못하고 사람들은 냇가나 거리에 분뇨를 함부로 버리고 있다. 도성의 물맛이 짠 것은 바로 함부로 내다 버리는 똥오줌 때문이다. 다리 밑을 보면 인분이 덕지덕지 달라붙어서 큰 장마가 아니면 씻기지 않는다.”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김옥균도 당시 조선 사람들의 위생인식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 사람들은 오죽했으면 이런 말을 한다. 조선에서 가장 무서웠던 것은 길에 가득한 사람과 짐승의 똥오줌이다.”

당시 조선 사람들은 머리에 이가 많으면 장수한다고 믿었고, 좀처럼 목욕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침례교선교사 알렌 선교사가 “한국인들의 목욕을 싫어하는 태도 때문에 세례의 침례방식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기록할 정도였다.

매년 전염병이 창궐했던 조선, 맹신했던 민간요법이 더 큰 문제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인성 질환은 물론이고, 각종 전염병이 매년 유행처럼 조선을 휩쓸었다. 1391년부터 1917년까지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전염병이 총 1,455건이나 됐다. 매년 유행처럼 전염병이 창궐했다는 의미다. 당시 조선 사람들이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면 맹신했던 민간요법을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정말 터무니없다.

‘사람 그림을 그리고 복부에 칼을 찌른다. 얼굴을 그리고 눈에 못을 박는다.’

이와 같은 행위는 타인을 저주하는 주술 같지만 말라리아와 눈병을 치료하기 위한 민간요법이었다. 호환마마보다 무서웠다는 콜레라 치료를 위한 민간요법은 ‘고양이부적’을 대문에 붙여두는 것이었다. 쥐가 콜레라의 원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821년 조선에 상륙한 콜레라는 1821년 9월 17일 황해감사 이용수가 “사망자가 8~9천 명에 이르며 한창 앓고 있는 무리는 그 수를 다 셀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했다. 1819년과 1822년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인구가 4만여 명 감소했는데, 실제 사망자는 십 수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1876년 개항 이후에도 수시로 콜레라가 창궐했다. 기록에 따르면 1876년, 1886년, 1895년 조선에 콜레라가 창궐했다. 당시 조선 교회와 선교사들은 전염병 극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을까?

조선의 조정과 백성들, 교회에 전적인 신뢰와 감사 보내

1895년 콜레라가 창궐하자 사회적 혼란이 심각했다. 당시 조정에서는 “예수병원에 가면 살 수 있는데 왜 죽으려고 하는가”라는 방을 내붙였다. 콜레라 방역 총책임자는 의료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비슨이었다. 당시 조선 조정은 에비슨 선교사의 요청에 따라 위생수칙을 전국에 공포했다.

“콜레라는 세균에 의해 발병됩니다. 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수가 급격히 증가해 병을 일으킵니다.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음식을 반드시 끓이고, 그 음식이 감염되기 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갓 끓인 숯을 마셔야 합니다. 찬물을 마실 때도 끓여서 깨끗한 병에 넣어 뒤야 합니다. 식사 전 반드시 손과 입안을 깨끗하게 씻으십시오. 이를 준수하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1893년부터 보호소를 만들어 콜레라 환자들을 돌봤다. 새문안교회 성

도들이 중심이 된 봉사자들이 함께했다. 언더우드 선교사의 보호소에서는 172명의 콜레라 환자를 돌봤고, 62명이 죽고 나머지는 회복되었다. 이때 조선의 정부가 선교사들과 봉사자들에게 보수를 지불했는데 그 돈으로 새문안교회를 건축했다.

갑오개혁 이후 신설된 위생국을 주축으로 검역소 운영과 방역활동을 실시했다. 당시는 콜레라 백신이 보급되기 전이기 때문에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의 헌신 말고는 콜레라 극복을 위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도성에 서만 하루에도 수백 명씩 죽어가는 끔찍한 상황이었다. 조선에서 질병으로 순교한 선교사들과 그 가족들이 정말 많았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콜레라를 피하지 않다.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는 끝까지 환자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다. 이러한 헌신에 조정과 백성들이 서양 선교사들과 조선 교회에게 전적인 신뢰와 감사를 보냈다.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

코로나19가 창궐한 이 시대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신뢰와 감사보다는 사회적 질타를 더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한국 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얼마나 잃어버렸는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지금 한국 교회의 역할이 무엇일까? 대한민국의 의료 환경과 공공보건 수준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부족함이 없다. 교회는 교회가 가장 잘하고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멈추지 않고 기도하고,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온누리교회는 ‘나라와 교회를 위한 릴레이 기도’, ‘나라와 교회를 위한 9시 기도 이 땅을 고치소서’, ‘나라를 위한 매일 기도 마리아행전 123’ 등의 기도운동을 이어가고 있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기 위하여 ‘공감 소비운동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 뜻 깊은 일에 온누리교회 성도 모두가 참여해서 믿음의 선배들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이 시대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명이다.

버려지 같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비밀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최윤 교수
(프랑스어예배, 소설가, 서강대 명예교수)

기독교로 개종한 초신자들은 신앙 초기부터 ‘영적방해’, ‘영적공격’, ‘영적전쟁’이라는 난해한 말을 듣게 된다. 누가 어떻게 방해하고 공격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저 막연히 반신반의하며 넘어간다. 공격의 주체가

‘사단’이라고 설명을 듣지만, 그게 무언지 확실치 않다. 일단 어둠의 영역이기에 정확하게 알기를 원하지 않으며, 때로는 ‘공격’, ‘전쟁’이라는 단어가 따라붙으니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까지 안내하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그를 세례에까지 인도하다보면 전도의 전 기간이 바로 영적방해와 전쟁의 기간임을 경험하지 않은 성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 겪는 고난을 상대방이 시련에 들까봐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다. 타락한 천사, 사단, 악마 같은 단어의 뜻과 그들의 활동을 알고 있다고 해도 초신자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가 어렵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이야기할 때 기쁨을 느끼기에 되도록 대적자 사단의 음흉한 행각에 시간을 할애하고 싶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이럴 때 반갑게 추천할 수 있는 책이 바로 C.S. 루이스(1898~1963년)가 1942년에 출간한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다. C.S. 루이스를 소개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기독교 저술가다. 그는 1,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며 유럽 지성사의 큰 변환기에 활동한 영국 저술가로서, 생애 마지막까지 다양한 영역의 저술을 멈추지 않았다. 31세에 회심한 후 삶과 신앙이 결합한 예사롭지 않은 삶을 살았던 것으로도 유명하다. 영문학자이자 문학평론가, 판타지 소설가, 아동문학가, 시인, 방송인... 그러나 그는 무엇보다 영국 성공회 소속 기독교 변증가로 그의 시대를 뛰어넘어 여전히 읽히고 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2차 세계대전의 한복판에서, 먼저 연재 형식으로 발표된 후(1941년 5월부터 11월까지, 지금은 사라진 잉글랜드 국교회의 주간신문 ‘가디언지’) 1942년 서적으로 출간된 소설 작품이다. 그가 회심한 지 10년 후에 발표한 이 저서는 〈순전한 기독교〉, 〈나니아 연대기〉와 함께 루이스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준 작품이다. 소설로서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악마’라는 쉽지 않은 주제를 전통적인 문학적 기법을 사용해서 경쾌하고도 능란하게 다루고 있다. 서문에서 이 소설의 집필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유럽의 독자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서간체 소설이다. 소설의 배경은 2차 세계대전 중의 영국이며, 발신자는 지역송고부 차관지휘관인 악마 스크루테이프이고, 수신자는 그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윈우드다. 고참 악마는 신참에게 막 기독교 신자가 된 한 평범한 청년을 실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유혹의 전략을 31개 편지로 지시한다. 편지에는 악마가 ‘원수’라고 부르는 하나님과 그가 ‘저 아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단, 악마의 영적 유혹이자 공격에 노출된 신자 청년과 여러 악마 졸개들이 등장한다.

이 책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고참 악마 삼촌의 명령으로 조카 윈우드가 한 환자를 맡게 되는데, 윈우드가 임무를 맡자마자 환자(청년)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게 된다. 당황한 악마

는 시대적 안타까움이 있다고 해도 천국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는 청년의 죽음은 그 자체가 악마들의 대실패인 것이다.

서간체 소설이 지닌 매력은 발신자의 내면을 세밀히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인데, 독자들은 루이스가 상상으로 만들어낸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의 거짓말, 오만과 과장, 계략은 그럴 듯하나 실패만 거듭하는 우스꽝스러운 면모가 백일하에 드러나는 것을 본다. 소설적 의인화와 상징을 동원해 루이스는 전통적인 예술 작품에서 그려진 악마와는 다른, 웃음을 자아내되 미친 듯 목적지향적이며 인간을 실족하게 해 영적으로 먹어버리는데 집중한 새로운 악마상을 만들어냈다. 책에 그려진 악마의 모습은 논리적 허점과 과장되게 빠지는 태도, 위치를 잘못 찾은 진지함으로 웃음을 유발하는데 이것은 악마에 대한 저자의 신학적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저자는 이에 관해 루터를 인용한다.

“성경 말씀에 승복하지 않는 악마를 퇴치하

의 분석과 비판에 다른 아니다. 악마의 유혹의 서사를 넘어서, 당시 서구가 어떻게 종교를 애국심이나 평화주의 같은 사상으로 대체했는지, 진리를 어떻게 상대화했는지, 현대 사회에서 믿음은 어떻게 수단이 되었는지, 어떻게 현대의 신앙은 세속주의에도 동조하며 영적인 생활도 누리는 이중적 삶에 만족하게 되었는지, 서구의 진화론이나 공산주의, 인본주의가 어떻게 인간을 철학적 미래에 집중하도록 했는지, 인본주의는 어떻게 역사적 예수를 비역사화 했으며 사상의 유행과 결합했는지 등 악마의 언술을 독자들이 반어적으로 되짚어보게 유도함으로써 당시 기독교의 위기에 대한 광범하고 직관적인 분석을 제안하는 것이다. 당시 세계대전으로 귀결된 이념과 가치의 위기는 기독교에 대한 악마적인 왜곡의 결과라고 이 책은 말하고 있다. 그러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 드러나는 시대적인 해석은 단지 루이스가 살던 당시에만 해당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대를 뛰어넘어, 여기 지금의 우리도 던질 수 있는 지속되는 문제들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이 책에서 역사적 시각이 결여되었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하는데, 이보다 더 농밀한 현대 사회에 대한 기독교적 역사 해석이 어디 있겠는가.

이 저서의 또 다른 깊이의 문은 초신자에게 전달하는 루이스의 확실한 신앙적 전언이다. 고참 악마가 무슨 수를 써도 이해할 수 없는 그것만 손에 넣으면 승리자로서 ‘저 아래의 아버지’에게서 칭찬 받고 아마도 우두머리 악마로 승진할지도 모르는 그것, ‘버려지 같은 인간에 대한 원수(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고참 악마가 아무리 궁금해 해도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품에 안고 초신자 청년은 폭격 속에서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다.

“버려지 같은 인간에 대한 원수(하나님)의 사랑의 비밀!

고참 악마가 아무리 궁금해 해도 결코 다가갈 수 없는

바로 그것을 품에 안고 초신자는 천국으로 들어간 것이다.”

들은 초신자의 믿음을 약화하는 전략을 줄줄이 도입한다. 이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환자라 불리는 이 신자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나가며, 그와 반비례로 삼촌과 조카 사이는 점점 거리가 벌어진다. 삼촌은 조카가 이 환자로 하여금 원수(하나님)에게서 멀어지도록 기도의 방해와 죄의 유혹, 문화적 세뇌 등의 방법을 지도하지만 제대로 성공하지 못한다. 스크루테이프는 그가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원수의 사랑’의 비밀을 꿰뚫으면 원수를 무찌르고 천국을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악마가 버려지 같은 인간이라 부르는) 초신자에게 혼동을 일으키고, 믿음을 흐리게 하며, 부패시키는 방향으로 작전을 짜던 중 이 환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 여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면서 큰 당혹감에 빠진다. 전쟁의 폭격은 점점 더 격화되고 환자를 지하세계로 인도하려는 장기계획을 세우지만, 공습 중에 이 환자는 사망해 하늘로 올라가 천국에 이른다. 거의 성공할 뻔한 과업에 실패한 조카 윈우드는 지옥세계의 약육강식 원칙에 따라 잔인한 고참 악마의 먹이감으로 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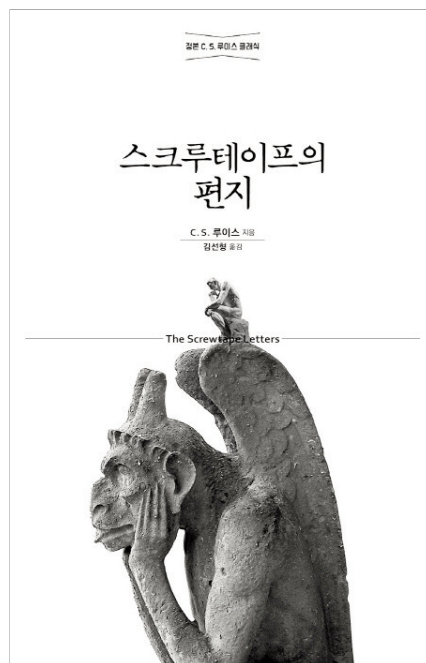
화려한듯하나 결국 천편일률적인 악마들의 작전과 거기서 빠져나와 한 걸음 더 신앙의 깊이로 인도되는 초신자 사이의 영적 전쟁은 결국 선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의 승리 앞에 악이 패하는, 독자를 안심시키는 결말로 끝이 난다. 비록 이 초신자가 전쟁의 폭격 속에서 사망하

려면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이 상책이다. 악마는 경멸을 참지 못하기 때문이다.”

초신자에게 전달하는 신앙적 전언

이 책은 기독교 독자들에게 악마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전통적으로 왜곡되었거나 안이했던 인식을 바로 잡아주는데 기여한다. 채트 스투츠의 평가처럼 루이스는 현대문화에 걸맞은 악마상을 그려내는데 성공한 것이다. 그러나 C.S. 루이스는 그의 다른 저서에서도 자주 그러하듯이 한 단계 더 깊이 침투하는 독서를 제안한다. 루이스는 일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들을 쉽게 쓰는 재능이 있기에, 현실의 맥락에서 구체적인 예화를 통해 전달한다. 그러나 루이스의 전달 방식은 여러 겹이다. 표층적 독서를 하는 독자가 보는 것이 있는가 하면, 심층적 독서를 원하는 독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책의 깊이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 작품은 이런 시각에서 볼 때 두 가지 심층의 문을 제안한다.

하나 는 시대적, 역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문이다. 악마는 자신들이 어떻게 성공적으로 인본주의적 사상들을 동원해 기독교를 약화시키는데 기여했는지를 자랑스럽게 나열하지만, 그것은 역설적으로 2차 세계대전을 눈앞에 둔 유럽의 지성사와 문화에 대한 루이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C.S. 루이스 저 | 홍성사 | 11,000원

서빙고

02. 793.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영어예배 오후 4시 경찬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임선양 팀장(010-9782-7733)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암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홀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홀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덜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분당 B102 / 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3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덜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

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파갈투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땅 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

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꿈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

케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

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11:00/봉사지예배 9:30/네팔어예배

10:30 제2센터/차세대 11:0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택 Love Hall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11:30 301호 / ANEWS예배

(영어) 주일 16:00 301호 / 힌디어예배 토요일

19:00 301호 / 네팔어예배 토요일 19:00 304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모임(살롬이스라엘)

일시: 매주 토 오전 8시~10시

장소: 서빙고 시온홀

문의: 010-8550-7930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홍숙의 집사(010-3003-5910)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웅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정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울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서훈주 선교사(010-3245-0710)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202호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 3째주 수요일 오전 8:30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오전 10:30 신관 4층 누리홀

온누리신문 취재기자 모집

대상: 문서사역 헌신자(경력자 우대)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명기사,

최종학력증명서

문의: khj@onnuri.org

선교사 숙소 도배 봉사자 모집

내용: 파송선교사를 위한 원통(1개) 전체 도배

모집: 경험이 있거나 섬김을 원하는 봉사자

일시: 추후 협의

문의: 010-2902-2763

더샘물학교 교직원 채용

채용분야: 사회/역사, 학습지원(4/20)

기타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tsmca.or.kr)

양재

02. 573. 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3부(열린예배) 11:3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념홀

문의: 김효섭 팀장(010-4711-1183)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채플실)

Jesus Rock 5세~초등1(충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중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꿈: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

(청년부)

갈릴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4세~고등

부), 11:00(발달장애인 대학부, 청년) 비

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서보희 총부(010-7235-0354)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3월 2일 재개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인도중보기도모임

일시: 매월 두 번째 월 오후 7시 30분

장소: 양재 온누리교회 충성홀

문의: 010-2735-3807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 초빙

분야: 기독교상담학

접수: 4월 20일~27일 17:00까지

문의: 02-570-7381

*www.ttgua.ac.kr 참조

부천

032. 322. 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

새벽기도 월~토 오전 5:20 분당

봄을 맞아 새로워진 CGNTV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매일 더 성장하는 신앙생활, 새로워진 QT 프로그램과 함께하세요.

생명의 삶



하루를 은혜와 감사로 채우는 QT 프로그램 <생명의 삶>이 새로운 구성을 통해 더욱 깊은 묵상의 길로 인도합니다.

방송시간 매일 오전 5시

예수님이 좋아요



알쏭~ 달쏭~ 쏙쏭남매와 함께 나누는 어린이 QT <예수님이 좋아요>로 쉽고 재미있게 성경을 배웁니다.

방송시간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CGNTV 뉴스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CGN투데이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 교육, 문화 등 매일 다른 섹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더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방송시간 월, 화, 수, 목요일 낮 12시

뷰포인트



오도훈 앵커, 주영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선보이는 새로운 뉴스쇼, 기독교적 관점으로 세상을 연결합니다.

방송시간 매주 금요일 낮 12시

CGNTV 프로그램은 CGNTV 웹사이트와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